

#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 공감 능력,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픽은희<sup>1</sup> · 박재순<sup>2</sup>

<sup>1</sup>삼육보건대학교 간호과, <sup>2</sup>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 Effects of a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on the Cultural Competence, Empathy and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Peek, Eun-Hee<sup>1</sup> · Park, Chai-Soon<sup>2</sup>

<sup>1</sup>Department of Nursing, Sahmyook Health University College, Seoul

<sup>2</sup>College of Nursi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examine the effects of a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on nursing students' cultural competence, empathy, and self-efficacy. **Methods:** In this quasi-experimental study, the participants were assigned to an experimental group (n=40) or a control group (n=40).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independent t-test, Chi-square or Fisher's exact test, and paired t-test with the SPSS windows 18.0 program. **Results:** After receiving the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the levels of cultural competence and self-efficacy in the experimental group were higher than in the control group. The level of empathy increased slightly in the experimental group while it decreased in the control group.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multicultural education is effective in raising the level of cultural competence and self-efficacy in nursing students. Thus, there is a need for continuous effort to integrate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s in the nursing curriculum. Repeated study to test effects of these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s should be also necessary.

**Key words:** Culture, Cultural competence, Empathy, Self-efficacy

##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한국 경제의 급성장과 세계화 추세와 더불어 외국인 노동자, 국제결혼 이민자와 외국 국적 및 동포 유학생의 유입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1년 말 사증의 면제를 포함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는 1,395,077명으로 집계되고 있다(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 2012). 그러나 이들은 낮은 교육수준과 사회경제적 지위, 열악한 신체 및 정

신건강 관리문제로 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Seol, Hong, Goh, & Kim, 2005), 이에 대응하여 정부에서는 전국 201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여러 가지 문화교육 및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2012).

다인종 다문화 국가인 미국의 경우 다문화 대상자들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간호교육에서도 간호현장 실무와 관련하여 문화적 역량이 중요한 용어로 언급되고 있다(Sue, 2006).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과목이 전공과목과 통합되어 교과 과정 내에 운영되고 있으며(Bagnardi, Bryant, & Colin, 2009) 간호사

주요어: 문화, 문화적 역량, 공감, 자기효능감

\* 이 논문은 제1저자 픽은희의 박사학위논문 일부 발췌한 것임.

\* This manuscript is based on a part of the first author's doctoral thesis from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Park, Chai-Soon

College of Nursi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222 Banpodae-ro, Seocho-gu, Seoul 137-701, Korea

Tel: +82-2-2258-7014 Fax: +82-2-2258-7772 E-mail: cspark@catholic.ac.kr

투고일: 2012년 12월 31일 심사완료일: 2013년 1월 18일 게재확정일: 2013년 9월 30일

자격 면허시험에도 다문화 관련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Silvestri, 2011).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국내 150개 간호대학 중 28개 대학만이 다문화 관련 교육과목을 개설하고 있고 대부분 전공이 아닌 교양선택으로 지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다양한 대상자를 만나게 되는 간호사는 전문인으로서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타인의 감정을 대리적으로 경험하는 공감적 자세가 필요하며(Hoffman, 2000)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문화적 역량이 요구된다. 그러나 신입간호사들의 경우 과중한 업무부담과 다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대상자에게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적절한 간호를 제공하는 것이 큰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Bandura (1989)가 제안한 것처럼 자기효능감을 높게 자각할 때 주어진 행동을 자주 선택하고 지속하며, 효능기대가 높을수록 동기 수준이 높아지므로 교육을 통해 자기효능감을 지속시키는 것(Lim, Downie, & Nathan, 2004)이 하나의 해결방안이 되리라고 본다. 이에 따라 인간관계의 실제적인 훈련이 요구되는 간호대학생에 대한 문화적 민감성 개발을 위한 교육과 훈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Cuellar, Brennan, Vito, & de Leon Siantz, 2008).

지금까지 다문화 관련 교육프로그램으로는 다문화가족 아동의 문화 역량 강화프로그램(Kang, Jung, Chung, & Lee, 2011), 교사들을 위한 다문화 교육프로그램(Jang, 2009), 다문화 인식, 문화적 민감성과 관련하여 일반인과 일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교육프로그램(Hyun & Park, 2003; Park, Lee, & Kim, 2011) 등이 있었으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위한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을 구성, 적용하여 이들의 문화적 역량, 공감 능력,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함으로써 간호교육 과정에서의 다문화 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로서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둘째,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공감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셋째,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넷째, 성찰일지 쓰기에 의한 문화적 역량 내용을 확인한다.

##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 공감 능력,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의 유사실험 연구이다.

### 2. 연구 대상

연구 대상자는 S시에 소재한 2개 간호대학생 80명으로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로 다문화 관련 교육이나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한 경험이 없는 학생으로 하였다. 시기는 전공과목을 학습하기 전 교양과목을 주로 학습하는 1학년생으로서 1학기 중에는 대학생 활을 어느 정도 익숙하게 되고 기초과학과 기본간호학을 이수하여 기본적인 간호개념을 이해하고 임상실습을 위한 준비로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마치게 되는 2학기 과정에 실시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0 program을 이용하여, 기존의 유사 연구가 없으므로 작은 효과크기 0.3로 선택하고, 유의수준 .05, 검정력 .80로 설정하였을 때 64명으로 산출되었으며, 모집된 연구 대상은 모두 여학생으로 실험군 40명, 대조군 40명으로 연구 종료 시까지 한 명의 탈락자도 없었다.

### 3. 연구 도구

#### 1) 문화적 역량

Campinha-Bacote (2007)가 개발한 Inventory for Assessing the Process of Cultural Competence Among Healthcare Professional-Student Version (IAPCC-SV)을 저자의 허락을 받아 본 연구자가 번역하고 다시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전문가가 역 번역한 것을 저자에게 보내어 본래의 의미를 확인받고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문화적 갈망 4 문항, 문화적 인식 3문항, 문화적 기술 3문항, 문화적 지식 5문항 및 문화적 접촉 5문항의 5개 영역으로 총 20문항이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인 4점 평점척도이며 가능한 총점 범위는 20-8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 역량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예비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7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6이었다.

#### 2) 공감 능력

Davis (1996)가 제작한 대인관계 반응지수(Interpersonal Reaction Index [IRI])를 Jeon (2002)이 재구성한 검사 도구로 저자로부터 허락

을 받아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30문항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거나 동정하는 24문항과 자기 중심적 생각을 나타내는 6개의 부정적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하고 부정적 6문항은 역 환산하였다. 가능한 총점 범위는 30-15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 능력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Jeon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0이었다.

### 3) 자기효능감

Bandura (1997)가 개발한 자기효능감 도구를 Ko (2004)가 수정·보완한 도구로 저자의 허락을 받아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15문항으로 자신의 문제해결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나타내는 8문항과 다른 사람에 비교하여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응답은 4점 평점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하고 부정적 문항은 역 환산하였다. 가능한 총점 범위는 15-6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Ko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8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75이었다.

## 4. 연구 진행 절차

### 1) 연구자 준비 및 이론적 개념들 구성

연구자는 미국 병원에서 임상간호사로서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가진 대상자를 24년간 간호하였고,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에서 10년 이상 전문가로서 활동해 왔다.

본 교육프로그램의 이론적 기틀은 Campinha-Bacote (2007)의 모델에서 도출되었다. Campinha-Bacote (2002)는 문화적 역량은 상이한 문화적, 인종적 배경과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현장에서 이주민과 효과적으로 활동하는 통합적 능력으로서 문화적 갈망이 중심적 역할을 하며 갈망이 폭발하면서 문화적 인식, 문화적 지식, 문화적 기술, 문화적 접촉의 5가지 요소가 동시에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공감 능력은 문화적 역량 요소들과 연결되는 매개체이며 문화적으로 역량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의 증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 개념을 통합하는 이론적 개념들을 구성하였다(Figure 1).

### 2) 다문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교육프로그램의 목표는 다문화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고(문화적 갈망) 자타문화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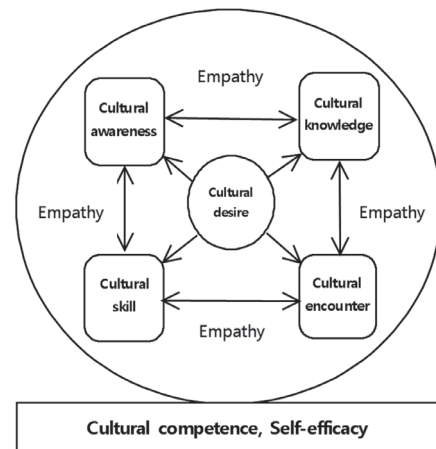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of the process of cultural competence and self-efficacy.

바른 인식(문화적 인식)과 타문화에 대한 존중 및 수용성을 증진시키며, 다양한 문화적, 민족적 대상자들의 문화와 질병·건강개념에 대한 지식의 습득(문화적 지식)과 이주민 강사와의 접촉을 통해(문화적 접촉) 문화적으로 민감한 간호사정 기술(문화적 기술)을 함양하기 위함이었다.

교육프로그램 개발은 다문화 교육 관련 문헌고찰을 통하여(Kardong-Edgren & Campinha-Bacote, 2008; Park et al., 2011) 이루어졌다. 내용은 다문화 개념과 한국 다문화 역사 소개를 통해 다문화에 대한 관심 자극 및 문화적 갈망을 고취시키는 도입단계, 국내체류 외국인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5개 국가의 역사, 종교, 가치관, 질병, 생물학적 및 약물 반응과 한국 문화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소개로 문화적 인식, 문화적 지식, 문화적 기술 및 문화적 접촉에 초점을 둔 전개단계,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을 나누고 평가하는 종결단계로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내용은 간호학 교수 2명, 다문화 교육전문가 1명, 15년 이상 임상경력이 있는 간호사 2인,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장 1명의 검토를 통해 내용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예비프로그램은 3년제 간호대학 2학년 1학기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2011년 4월 4일부터 5월 23일까지 7회기로 나누어 시행되었다. 프로그램 진행은 학습자의 흥미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학습활동인 마인드맵 그리기(Jung, 2004)를 시작하여 1회기 당 60분씩 동영상, PPT, 강의, 그룹활동으로 구성되었다. 성찰일지 쓰기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학습과정을 반성하며 갖게 되는 소감이나 의견을 스스로에게 표현하는 학습기록(Hwang & Jang, 2005)으로서 문화적 역량을 증진하는데 효과적이므로(Cross, Brennan, Cotter, & Watts, 2008)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것과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하여 회기 종료 후 자유롭게 개방형으로 기록하게 하였다.

### 3) 최종프로그램 확정 및 교육 시행

본 프로그램은 2학년의 경우 어느 정도의 실습과정을 통해 대인 관계에 대한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새롭게 실습을 시작하는 1학년의 경우 사전훈련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여 본 프로그램 대상으로 선택하여 2011년 11월 1일에서 12월 13일까지 실시하였다.

예비프로그램 결과, 간호대학생들은 주로 타문화의 역사, 생활방식, 질병, 죽음 및 의료 관련 정보보다는 타국의 음식문화와 축제 및 다문화 대상자에게 “해도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며 질의응답에는 소수의 학생만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므로 본 프로그램에서는 서구문명에 대한 노출 기회가 많은 미국을 제외하고 현재 한국에 거주자가 많은 국가 순으로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4개 국가를 선택하였다. 각 국가의 개괄적 소개에서는 역사 부분을 간략하게 다루고, 문화적 개념과 이해를 심층적으로 다루기 위해 서론 부분을 2회기로 하였다. 특히, 전개단계에서 각 국가의 소개는 해당 국가 외국인 강사를 직접 참여하도록 하였고, 국가 차이에 대한 이해 확장을 위해 교육프로그램의 회수를 11회기로 연장하였다. 수정된 프로그램은 1차 패 널자에 의해 재검토되었다. 프로그램 진행은 6-7명을 한 그룹으로 정하여 소그룹 마인드맵 그리기, 그룹토의 및 성찰일지 쓰기로 매 회기마다 모든 학생이 학습목표에 따라 학습과 발표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형성하였다.

## 5. 자료 수집 절차

구체적인 자료 수집 절차는 C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No. CUMCHU155)의 승인을 받고, A, B대학 간호학과장의 승인을 받은 후 간호대학 1학년 학생 중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자원한 간호대학생에게 연구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서면동의서를 받았다. 다문화 교육프로그램 실시 전에 실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 A대학 간호대학생은 실험군으로, B대학 간호대학생은 대조군으로 배정하고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 문화적 역량, 공감 능력, 자기효능감을 사전 조사하였다. 실험군에게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을 6주 동안 진행하였고,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이 종료되는 6주째에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문화적 역량, 공감 능력, 자기효능감을 사후 조사하였다. 대조군에게는 연구 종료 후 연구자가 연구 목적으로 구성된 소책자 “간호대학생을 위한 문화교실 I-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을 중심으로-”를 전달하였다.

## 6.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8.0/PC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일반적 특

성은 실수,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두 군 간에 동질성은 Independent t-test, Chi-square or Fisher's exact test로 분석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프로그램 효과 차이에 대한 분석은 Independent t-test와 paired t-test로 하였다. 매 교육프로그램마다 수집된 성찰일지는 학생들의 기록 내용을 단계마다 문장 단위로 전사하여 Kim과 Choi (2007)의 귀납적 내용분석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 연구 결과

### 1. 대상자의 동질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중재 전 문화적 역량, 공감 능력, 자기효능감은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차이가 없어 두 군 간에 동질성이 확인되었다(Table 1, 2).

### 2. 문화적 역량

문화적 역량은 실험군의 경우 중재 전 51.83점에서 중재 후 67.78점으로 증가하였으며( $p < .001$ ), 대조군은 52.58 점에서 53.20점으로 차이가 없어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1$ ) (Table 3).

### 3. 공감 능력

**Table 1.** Comparison of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 (n=40)	Cont. (n=40)	$\chi^2$	p
		n (%)	n (%)		
Age (year)	≤ 19	33 (82.5)	32 (80.0)	0.08	.775
	≥ 20	7 (17.5)	8 (20.0)		
Religion	Yes	22 (55.0)	16 (40.0)	0.11	.745
	No	18 (45.0)	24 (60.0)		
Experience of living overseas	Yes	6 (15.0)	5 (12.5)	2.46	.116
	No	34 (85.0)	35 (87.5)		
Experience of visiting overseas	Yes	22 (5.0)	15 (37.5)	0.24	.626
	No	18 (45.0)	25 (62.5)		
Experience of volunteering overseas	Yes	13 (32.5)	11 (27.5)	1.81	.179
	No	27 (67.5)	29 (72.5)		
Foreign friends	Yes	11 (27.5)	17 (42.5)	1.98	.160
	No	29 (72.5)	23 (57.5)		
Family members living overseas	Yes	25 (62.5)	18 (45.0)	2.46	.116
	No	15 (37.5)	22 (55.0)		
Fluency in speaking foreign languages	Advance	4 (10.0)	1 (2.5)		.447*
	Intermediate	23 (57.5)	26 (65.0)		
	Novice	38 (32.5)	13 (32.5)		

\*Fisher's exact test.

Exp. = Experimental group; Cont. = Control group.



공감 능력은 실험군의 경우 중재 전 115.50점에서 중재 후 120.03점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고 대조군은 중재 전 111.48점에서 중재 후 102.88점으로 감소하여 ( $p < .001$ ),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1$ ) (Table 3).

#### 4.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점수는 실험군의 경우 중재 전 44.98점에서 중재 후 51.03점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p < .001$ ), 대조군은 중재 전 42.60점에서 중재 후 38.88점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p < .001$ ). 각 군의 중재 전·후의 점수 차이는, 실험군은 6.05점, 대조군은 -3.73점으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1$ ) (Table 3).

#### 5. 성찰일지 내용분석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용된 자기성찰일지를 종합하여 내용 분석한 결과 “다문화에 대한 흥미와 관심”, “개인의 편견과 자문화에 대한 인식 부족을 깨달음”, “타문화에 대한 새로운 발견과 자문화와 타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학습함”, “간호사정에 주의를 요하는 내용”, “타문화 대상자와 직·간접적 접근 경험”,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봄”, “교육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을 기반으로 얻은 자신감”의 7개 주제로 분류되었으며 이는 문화적 역량 5개 영역(문화적 갈망, 문화적 인식, 문화적 지식, 문화적 기술, 문화적 접촉)과 공감 능력, 자아효능감과 관련된다. 각 주제의 다

빈도를 내용을 영역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다문화에 대한 흥미와 관심 영역은 문화적 갈망의 범주로 “다른 문화에 대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 있는지 알고 싶다” 78%, “한국과 다른 나라 문화에 차이에 대하여 알고 싶다” 70%를 나타내었다. 개인의 편견과 자문화에 대한 인식 부족을 깨달음 영역은 문화적 인식의 범주로 “인종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무의식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가 85%, “내가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 잘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가 75%로 나타났다.

타문화에 대한 새로운 발견과 자문화와 타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학습함의 영역은 문화적 지식의 범주로 “베트남과 중국 문화에서 부모를 모시는 것과 노인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75%, “중국에서는 남자들이 집을 장만하고 여자는 살림을 장만하는 것이 한국과 비슷하다” 73%,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식이 많고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게 해석된다는 것이 재미있다”가 73%로 나타났다. 간호사정에 주의를 요하는 내용의 영역은 문화적 기술의 범주로 “말도 안 통하고 배경을 모르면 오진하기 쉽겠다”가 83%, “외국인을 대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많다”가 80%를 나타내었다.

타문화 대상자와 직·간접적 접근 경험의 영역은 문화적 접촉의 범주로 “그 나라 말을 알고 대화해보고 싶다”가 73%, “현지 사람들을 직접 만나 대화하고 싶다”가 70%를 나타내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봄의 영역은 공감 능력의 범주로 “내가 찬드라였다면 하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가 58%, “한국인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용한다는 사실에 분개한다”가 50%로 나타내었다. 교육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을 기반으로 얻은 자신감의 영역은 자기효능감의 범주로 “찬드라 같은 사람을 만나면 정말 잘해줄 수 있을 것 같다”가 65%, “인종에 따라 특정 약물에 반응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배웠다”가 63%를 나타내었다.

### 논 의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에게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문화적 역량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교육과정을 통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 자문화와 타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수용성, 문화

**Table 2.** Baseline Outcome Measure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Variables	Exp. (n=40)	Cont. (n=40)	t	p
	M ± SD	M ± SD		
Cultural competence	51.83 ± 4.85	52.58 ± 4.89	-0.69	.493
Empathy	115.50 ± 8.96	111.48 ± 10.48	1.80	.076
Self-efficacy	44.98 ± 5.22	42.60 ± 6.00	1.89	.063

Exp. = Experimental group; Cont. = Control group.

**Table 3.** Effect of Multicultural Educational Program

Variables	Groups	Pretest	Posttest	$t^w$	p	Difference	$t^b$	p
		M ± SD	M ± SD			M ± SD		
Cultural competence	Exp.	51.83 ± 4.85	67.78 ± 4.59	-18.01	<.001	15.95 ± 5.60	11.47	<.001
	Cont.	52.58 ± 4.89	53.20 ± 5.62	-0.63	.536	0.625 ± 6.32		
Empathy	Exp.	115.50 ± 8.96	120.03 ± 8.26	-2.10	.42	4.53 ± 13.60	4.29	<.001
	Cont.	111.48 ± 10.48	102.88 ± 9.86	3.96	<.001	-8.6 ± 13.74		
Self-efficacy	Exp.	44.98 ± 5.22	51.03 ± 4.75	-5.43	<.001	6.05 ± 7.05	6.56	<.001
	Cont.	42.60 ± 6.00	38.88 ± 2.42	3.76	<.001	-3.73 ± 6.26		

w: Within group; b: Between group; Exp. = Experimental group(n=40); Cont. = Control group(n=40).

적 기술과 민감성을 강조한 결과라고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는 타문화에 대한 인식이 증진될수록 문화적 역량이 증진된다고 본 Hammer, Bennett와 Wiseman (2003)의 주장과 4학년이 1학년보다, 학생보다 교수진이 문화적 역량이 높음을 보인 결과에 따라 간호학 교과 과정에 구조화된 문화교육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문화적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한 Sargent, Sedlak와 Martsof (2005)의 연구에 의해 지지가 되었다. 그러나 Campinha-Bacote (2007)가 제시하는 문화적 역량의 구성요소별로는 수용할 만한 차이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문화적 역량의 중심이 되는 것으로 제시된 문화적 갈망과 다른 요소에 대한 영역별 특성에 대한 추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공감 능력의 증진은 본 연구에서는 다소 미미했는데, 이는 공감 능력의 개발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반응할 때 나타나며,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는 경험을 통하여 개발된다는 선행 연구(Gudykunst, 1984)에 비추어 볼 때 아직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대학 1학년생으로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할 만한 감정적 여건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믿거나 말거나 찬드라”에 대한 동영상 시청한 대다수의 학생들은 찬드라의 입장을 공감하였고 찬드라와 같은 외국인에 배려하고자 하는 감정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공감 능력 증진의 필수조건인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대상자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체험학습(Cronin, 2005)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킬 때 공감 능력의 향상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자기효능감 또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상승되었는데, 이는 수차례의 학습을 통하여 타문화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식하면서 자신이 가졌던 편견과 선입견이 감소되고 문화적 배경이 다른 대상자와 접근하는데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는 대상은 다르지만 다문화가족 아동의 문화 역량 강화프로그램이 아동의 힘 북돋우기에 도움을 주었던 결과(Kang et al., 2011)와 관광대학생의 기업가적 자기효능감이 교육을 통해 높일 수 있었던 결과에서도 지지가 되었다(Kim & Kim, 2012). 이와 같이 자기효능감은 다문화 교육을 통하여 문화적으로 역량이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보여지는 개인적 특성으로 고려되므로 간호학 교과 내에서의 교육 훈련이 계획될 필요가 있다.

Campinha-Bacote (2007)에 의하면 문화적 역량을 측정 가능한 5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요인별 차이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성찰일지에서 다빈도로 나타난 내용 중 다문화에 대한 흥미와 관심, 개인적 편견과 자문화에 대한 인식 부족을 깨달음, 타문화에 대한 새로운 발견과 자문화와의 차이점을 학습함, 간호사정에 주의를 요하는 내용, 타문화 대상자와 직·간접적인 접근 경험,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봄, 교육을 통한 자신감

획득의 결과들은 본 연구의 주요 개념인 문화적 역량 5개 영역(문화적 갈망, 문화적 인식, 문화적 지식, 문화적 기술, 문화적 접촉)과 공감 능력, 자기효능감과 관련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문화에 대한 흥미와 관심”으로 표현된 문화적 갈망은 타인에 대한 진정한 열정, 열린 마음, 차이에 대한 존중과 관심을 의미하며, 이는 문화적으로 역량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에 필요한 동력(Campinha-Bacote)으로 볼 수 있다. “개인의 편견과 자문화에 대한 인식 부족을 깨달음”으로 표현된 문화적 인식은 인간이 어떤 것에 많이 접할수록 호감이 증가한다(Mo & Hwang, 2007)는 주장에 의해 지지가 되며, 자신이 타문화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 및 오해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은 다문화 교육을 통해 문화적 역량을 갖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타문화에 대한 새로운 발견과 자문화와 타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학습함”으로 표현된 문화적 지식은 우리 고유의 문화와 다른 문화를 이해하면 왜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고 사고하는지가 분명해지며, 다른 문화에 대한 학습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된다(Bennett, 2009)는 주장에 의해 지지가 된다. “간호사정에 주의를 요하는 내용”으로 표현된 문화적 기술은 문화적 지식을 기반으로 정확한 간호진단 능력, 의사소통 능력, 특히,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개발의 중요성을 반영하며, 다양한 인종 간의 신체적 구조, 피부색, 약물의 반응에 대한 차이를 인식하는 것은 다문화 대상자들에게 적절한 간호사정 기술 활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타문화 대상자와 직·간접적 접근 경험”에 대한 느낌을 나타낸 문화적 접촉은 이러한 시도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이는 간접적인 경험에 불과할 수 있으며 동일 문화권 사람이라도 같은 행동양상을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Campinha-Bacote, 2007) 한 명의 외국인 강사를 통해 그 나라의 문화적 접촉을 경험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간호대학생에게 적용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문화적 역량 강화와 공감 능력 및 자기효능감 증진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나 짧은 기간 동안 여러 나라의 문화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단순히 문화적 지식과 관련된 정보로만 인식될 수 있으며, 일부 국가와 민족, 문화에 대해 완전 학습을 도모하였다는 자신감으로 특정 국가와 인종 및 민족에 대한 특성을 일반화하고 목록화할 위험성이 있음(Bennett, 2009)을 고려하여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역량의 속성을 분리해내지 못하였고 단기간의 교육 효과가 어느 정도 유지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으므로 추후 이에 대해 보완된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문화는 주위 환경에 따라 변화하므로 반드시 학습되어야 하며, 관습과 전통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것은 교육을 통하여 가능하므로(Bennett) 현재 일부 간호대학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 관련 교육이 교과과정 내에 체계화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 결론

본 연구는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 공감 능력,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의 유사실험 연구로 시도되었다. 결과에서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이 문화적 역량 강화와 공감 능력 및 자기효능감 증진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문화적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이 간호교육 과정에 도입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반복적이고 보완된 다문화 교육프로그램 연구를 제언한다.

## REFERENCES

- Bagnardi, M., Bryant, L., & Colin, J. (2009). Banks multicultural model: A framework for integrating multiculturalism into nursing curricula.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25(4), 234-239. <http://dx.doi.org/10.1016/j.profnurs.2009.01.010>
- Bandura, A. (1989). Regulation of cognitive process through perceived self-efficacy. *Developmental Psychology*, 25, 729-735.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NY: Freeman.
- Bennett, C. I. (2009). *Multicultur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O. S. Kim, et al., Trans.). Seoul: Hakjisa Publisher. (Original work published 2007)
- Campinha-Bacote, J. (2002). The process of cultural competence in the delivery of healthcare services: A model of care. *Journal of Transcultural Nursing*, 13(3), 181-184.
- Campinha-Bacote, J. (2007). *The process of cultural competence in the delivery of healthcare services: The journey continues* (5th ed.). Cincinnati, OH: Transcultural C. A. R. E. Associates.
- Cronin, M. S. (2005). *Enhancing the cultural competence of social work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eshiva University, New York, NY.
- Cross, D., Brennan, A. M., Cotter, V. T., & Watts, R. J. (2008). Cultural competence in the master's curriculum-a course exemplar.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24(3), 150-154. <http://dx.doi.org/10.1016/j.profnurs.2008.01.007>
- Cuellar, N. G., Brennan, A. M., Vito, K., & de Leon Siantz, M. L. (2008). Cultural competence in the undergraduate nursing curriculum.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24(3), 143-149. <http://dx.doi.org/10.1016/j.profnurs.2008.01.004>
- Davis, M. H. (1996). *Empathy: A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Boulder, CO: Westview Press.
- Gudykunst, W. B. (1984). *Communicating with strangers: An introduction to intercultural communications*. Australia, AU: McGraw-Hill Australia.
- Hammer, M. R., Bennett, M. J., & Wiseman, R. (2003). Measuring intercultural sensitivity: The intercultural development inventory.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7(4), 421-443. [http://dx.doi.org/10.1016/S0147-1767\(03\)00032-4](http://dx.doi.org/10.1016/S0147-1767(03)00032-4)
- Hoffman, M. L. (2000). *Empathy and moral development: Implications for caring and justice*.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wang, S. Y., & Jang, K. S. (2005). Perception about problem-based learning in reflective journals among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5(1), 65-76.
- Hyun, E. J., & Park, S. Y. (2003). The effect of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using picture books on young children's attitudes toward race and cultures. *Journal of Children's Literature and Education*, 3(2), 101-124.
- Jang, W. S. (2009). A study on the curriculum for multicultural teacher education suitable to Korean society. *Social Studies Education*, 48(1), 57-79.
- Jeon, B. S.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and altruistic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 Jung, I. C. (2004). Impacts of mind-map on students' learning mathematics.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Mathematical Education Series A: The Mathematical Education*, 43(2), 139-149.
- Kang, K. J., Jung, E. M., Chung, H. J., & Lee, S. Y. (2011).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cultural competence program for empowering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6(1), 5-22.
- Kardong-Edgren, S., & Campinha-Bacote, J. (2008). Cultural competency of graduating US Bachelor of Science nursing students. *Contemporary Nurse*, 28(1-2), 37-44.
- Kim, M. S., & Kim, Y. G. (2012). Effects of individual trait, educational, organizational factor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in tourism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Journal of Foodservice Management Society of Korea*, 15(4), 61-84.
- Kim, S. W., & Choi, T. J. (2007). *Research methodology in education*. Seoul: Hakjisa Publisher.
- Ko, E. J. (2004). *Improvement of underachiever's confidence and self-esteem using music therapy program*.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cheongbuk-Do.
-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 (2012 July). *KIS Statistics 2011* (11-1270000-000465-10). Gwacheon: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
-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2012, May).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facts* (2012-KIHF-014). Seoul: Author.
- Lim, J., Downie, J., & Nathan, P. (2004). Nursing students' self-efficacy in providing transcultural care. *Nurse Education Today*, 24(6), 428-434. <http://dx.doi.org/10.1016/j.nedt.2004.04.007>
- Mo, K. H., & Hwang, H. W. (2007). A study on multicultural awareness of secondary school teachers: Focused on Korean and social studies teachers in the metropolitan area. *Theory and Research in Citizenship Education*, 39(3), 79-100.
- Park, S. H., Lee, J. H., & Kim, E. J. (2011). Effects of the multicultural program on the promotion of cultural sensitivity in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6), 123-145.
- Sargent, S. E., Sedlak, C. A., & Martsoff, D. S. (2005). Cultural competence among nursing students and faculty. *Nurse Education Today*, 25(3), 214-221.
- Seol, D. H., Hong, S. K., Goh, H. U., & Kim, I. T. (2005). *Survey on the health conditions of migrant workers in Korea*. Seoul: Korean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Healthcare.
- Silvestri, L. A. (2011). *Saunders comprehensive review for the NCLEX-RN examination* (5th ed.). St. Louis, Mo: Elsevier Health Sciences.
- Sue, S. (2006). Cultural competency: From philosophy to research and practice.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4(2), 237-245.